

종교적 영웅 서사로서 〈초공본풀이〉 연구*

—무조신(巫祖神)의 의미를 중심으로—

유정월**

<차 례>

1. 서론
2.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의 존재
 - 1) 아기씨 서사에서 세속과 신성
 - 2) 삼형제 서사에서 세속과 신성
3.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의 거리
 - 1) 통합에 실패하는 세계: 탁월한 능력과 심화된 고통
 - 2) 통합에 성공하는 세계: 낮은 능력과 자리의 획득
4. 세속적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로의 이행: 부정과 엇갈림
5. 비극과 자존의 이중적 메시지

<국문초록>

본 논의는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가 무조신(巫祖神)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 이 신화의 전승자들에게 무조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에서 삼형제의 능력이나 욕망은 대립적이다. 세속적 세계에서 삼형제는 문무에 탁월한 능력으로 벼슬을 하고자 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신성한 세계에서 삼형제는 악기를 만들어 치고 어머니를 재생하는 데 성공한다. 각각의 세계에서 아버지 주자선생의 역할 역시 방해자와 조력자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삼형제가 무조신이 되는 과정에서 세속을 초월했다거나 자연스럽게 이행했다고 보기 힘들게 한다. 이들은 세속적 능력이나 자질을 부정하거나 끊어내고 무조신이 된다. 이는 텍스트 문면에서는 ‘팔자를 그르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초공본풀이>의 삼형제가 영웅이라고 한다면, 이 종교적 영웅은 이루고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성취한 영웅이 아니라 한 세계를 부정해 낸 영웅, 단절을 인내한 영웅이다. <초공본풀이>는 그런 영웅으로서 무조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며, 세속과 종교의 관계, 세속에서 인간의 삶과 무속에서 사제의 삶의 관계를 엮갈린 구조로 명시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결국 텍스트의 엮갈린 구조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 본풀이는 비극과 자존의 이중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구축한다.

□ <초공본풀이>, 무조신, 세속적 세계, 신성한 세계, 종교적 영웅, 엮갈린 구조, 비극, 자존

1. 서론

본 논의는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가 무조신(巫祖神)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 이 신화 전승자들이 무조신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무조신에 대한 신화로 대표적인 것은 바리공주이지만 제주도에서는 바리공주가 전승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무조신으로 생각되는 것은 <초공본풀이>의 등장인물이다. <초공본풀이>는 제주의 무조신에 대한 이야기면서 무조신의 ‘권능’보다는 무조신이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바리공주와 차별적이다.¹⁾ <초공본풀이>의 무조신 되기 과정은, 세속의 영웅과 달리 종교적 영웅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에 대해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²⁾

1) 정주희, 『제주도 무구 ‘삼뎡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민속학연구』 29, 2011, 21쪽. 여기에서 정주희는 <바리공주>가 재생에, <초공본풀이>가 재생 방법인 곳에 중점을 두며, 그런 점에서 <초공본풀이>가 상대적으로 현재적이며 구체적이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영웅은 특수한 능력을 기반으로 집단적 이익을 성취하는 인물이라는 일반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에 바탕을 둔다.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영웅과 무속신화의 종교적 영웅이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송효섭, 『역사 담론과

<초공본풀이>의 초기 연구는, <제석본풀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³⁾ 스님이 아기씨와 정을 통해 아이를 낳고 이들이 신으로 좌정한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는 유사한 모티프를 공유한다.⁴⁾ 이는 일종의 전파론적 관점을 가지는데, <초공본풀이>를 보편적 내용과 특수한 내용으로 구분하면서 특수한 내용을 지역적 변이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공본풀이> 이야기 중심이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에 해당하는 아기씨라기 보다는 그녀의 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⁵⁾

최근 <초공본풀이>에 대한 논의는 텍스트의 거시적 면모와 역사적 지층을 확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초공본풀이>의 고유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들은 <초공본풀이>에 세속과 종교(무속), 비속과 신성, 일상과 초월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 혹은 세계가 있음을 전제한다.⁶⁾ 본고 역시 <초공본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공간 혹은 세계

제의 담론」,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윤보윤, 「古典小說에 나타난 英雄人物의 類型과 形象化 研究」,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14쪽 참고.

- 3)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183~199쪽. <제석본풀이>는 ‘제석굿’, ‘세존굿’, ‘생굿’ 등의 무의에서 구연되는 생산신 또는 수복신의 본풀이다. 여주인공 명칭을 따서 <당금애기>, <서정애기>, <제석님에 따님애기>로 불리기도 한다. <초공본풀이>는 <제석본풀이>의 서남지역 판본 중 하나로 생각된다. 서대석, 「<제석본풀이> 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홍태한, 「동해안지역 당금애기 연구」, 『한국민속학』 9, 1998, 173~193쪽,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16쪽.
- 4) 이 견해에 따르면 <초공본풀이>에서 잉태한 아기씨가 스님을 찾아가는 내용은 <제석본풀이>의 서남지역 판본의 특징이며, 서남지역 판본에서 나오지 않는 <초공본풀이>의 내용(삼천선비의 방해, 옥에 갇힌 어머니의 구출, 무조신으로의 좌정)은 제주도의 지역 유형이 된다. 서대석(1980), 위의 책, 187쪽.
- 5)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 배달말학회, 1986, 29쪽.
- 6) 신연우(2012), 앞의 논문, 169~193쪽,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짜임새와 미적 성취」,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343~368쪽,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

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⁷⁾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무당의 조상신인 무조신은 세속적 세계에만 속한 존재도 아니고, 초월적 세계에만 속한 존재도 아니다. 무조신은 이 두 세계를 중재하는 존재이며, 세속과 신성의 두 세계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 인물이 무조신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무조신에 대해 가지는 전승자들의 관점을 읽어내는 데 유용할 것이다.

<초공본풀이>가 무조신이 되는 과정을 재현하면서 무조신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메타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때, 이 논의는 본풀이의 결말이 기능상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일반적으로 본풀이의 결말은 주인공이 신으로 좌정하는 내용이다. <제석본풀이>에서 삼형제는 풍요의 신인 제석신(帝釋神)으로, 어머니는 삼신(三神)으로 좌정⁸⁾하지만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는 무조신(삼시왕)으로, 어머니는 무구(巫具)와 악기를 관리하는 당신(堂神)으로 좌정⁹⁾한다.

고찰, 『국어국문학』 110, 국어국문학회, 1989, 359~370쪽,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 배달학회, 1986, 185~214쪽.

- 7) 신월균은 이 두 세계의 대립을 명시하였지만 삼형제로 인해 두 세계가 내면적으로 밀착한다고 보았다. 삼형제는 성과 속 사이를 교통하는 센터Center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신월균(1989), 앞의 논문, 368쪽.) 신연우는 아기씨와 삼형제뿐 아니라 무당, 나아가 “자기 안에서 초월을 수용하고 고난을 수용하고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땅에 매인 인간을 벗어나 진정한 초월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중심으로 보았다.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탐라문화』 36, 2010, 85~110쪽.) 본고는 삼형제가 매개자 혹은 또 다른 중심이 아니라, 세속의 세계를 부정하고 신성한 세계에 받아들여진 존재로 본다. 또한 신연우는 아기씨의 서사를 중심으로 “속의 부정적 면모를 버리고 성스러운 초월적 세계로의 지향성”을 읽는다. (신연우(2012), 앞의 논문, 182쪽.) 본고는 서사의 주인공인 삼형제를 중심으로 이 두 세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세속에서 신성으로 전환의 성격을 탐구하고자 한다.
- 8) <제석본풀이> 이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가령 중과 함께 선관선녀로 승천하는 양주본도 있다. 그러나 많은 판본에서 당금은 삼신의 직능을 부여받는다.
- 9) 삼형제의 경우 저승의 삼시왕이 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아기씨의 신직에 대해서는 이본마다 다르며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박봉춘 본에서는 아기씨가 인간에게 복을 주는 “복차지 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김명윤 본에서

신화에서 최종적 신직의 차이는 중요하다. 이는 이 신화의 결말을 구성한다. 결말은 시작과 중간의 체계적 관계망 위에서만 거론될 수 있는 구조적 개념이다.¹⁰⁾ 전통 시학자들이 조명하는 이야기의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등장인물의 운명이 확인되는 순간(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가 자신의 궁극적 위치를 깨닫거나, 독자가 그의 정체와 운명을 눈치 채는 순간)이며 작품 전체의 의미가 해명되고 제시되는 지점이다.¹¹⁾ 결말이 전체 의미를 해명하고 제시하는 지점이라는 것은, 역으로 이 결말을 통해 앞서 있던 사건들이 구체화되거나 재해석된다는 것이다.¹²⁾

본풀이에서 결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신으로의 좌정이라면 이는 일종의 “인정(sanction)”¹³⁾ 단계이다. 인정은 “수행(performance)”한 것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수행과 인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수행이 다르면 인정도 다르다. 일견 유사해 보이는 수행이라 하더라도 다른

는 무구가 있는 당을 지키는 당신으로 나타난다.

10) 김현, 『현대소설의 담화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1995, 5쪽.

11) <결말>,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DB.

12) 리파테르는 독서과정을 일차 독서와 이차 독서로 나누었다. 일차 독서가 진행적이며 순차적인 독서라면 이차 독서는 역전적이며 주체적 독서이다. Michael Riffaterre, *Semiotic of Poetry*, Bloomington and London: Indiana Univ. Press, 1978. 이에 따르면 이차 독서는 특히 결말에 내포하는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말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은 다음을 참조한다. John Frank Kermode, *The Sense of an Ending-Studies in the Theory of Fic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2000, pp.3~34, D.A. Miller, “Narrative and its Discontents: Problems of Closure in the Traditional Novel”, *Criticism-a Quarterly for Literature and the Arts*, 24,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82, pp.78~81.

13) 파리기호학파가 연구한 서사의 일반적 도식 가운데 하나로 계약-조종(contract-manipulation) → 능력(competence) → 수행(performance) → 인정(sanction)의 순으로 나타나며 이는 언어학적 기반을 가진다. 상태발화인 “이다be”와 행위발화인 “하다do”가 결합되는 네 가지 경우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 서사 도식에는 ‘역순의 논리적 전제 관계’가 성립한다. 인정은 수행을 전제로 하고 수행은 능력을 전제로 한다. 박인철,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204쪽.

인정이 뒤따르는 경우, 인정을 통해 수행에 소급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서천꽃밭의 꽃을 가져와 사람을 살리는 동일한 수행을 한 “자청비”와 “녹디생인”이 각각 농경신과 문전신으로 좌정했다면, 각기 다른 결말로 이전의 수행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결말이 있고 나서야 텍스트의 각 요소들은 구체화되거나 의미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삼형제가 풍요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이야기인 <제석본풀이>와 달리, <초공본풀이>는 삼형제가 무조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이야기로 읽어야 그 특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¹⁴⁾

이미 앞서 논의에서 암시되었지만, 본고는 <초공본풀이>의 주인공은 삼형제이며, 이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텍스트가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초공본풀이>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초공”이 삼형제의 신직이라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작품 내에 “초공”이라는 신이 등장하지 않는다. ‘초공(初公)’의 ‘초(初)’는 ‘처음’, ‘기원’, ‘근본’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초공’은 처음 곳을 행한 사람을 뜻하며 텍스트에서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삼형제이다. 이들이 ‘초공’인 이유는 처음 곳을 행한 무조이기 때문이다. 처음 곳을 행했다는 것은 곳을 하는 무구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큰굿에서 초공은 ‘신뿌리(신의 뿌리)’로 인식되고 있다. <초공본풀이>는 무조신이 되는 삼형제의 내력을 가장 주요하게 서술하는 이야기이다.¹⁵⁾

14) 이야기들 사이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장 이름의 이름, 모티프의 유사성 등이 기준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때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사 구조나 심층 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15) <초공본풀이>에서 “초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 배달말학회, 1986, 211쪽, 김우주, 『<초공본풀이>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24쪽 참조. 제주도 무속에서 ‘초공’, ‘이공’, ‘삼공’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이는 의례 맥락에서 제차의 순서나 신의 위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초공이 삼형제를 의미한다면,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가 무조신으로 좌정하기에 어떤 적절한 시련을 겪었는가 즉, 시련과 지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보아야 한다. <제석본풀이>와 달리, <초공본풀이>에서 아버지 주자선생은 삼형제를 시험하지 않는다.¹⁶⁾ 대신 이들은 삼천선비로 인해 시련을 겪는다. 삼천선비는 삼형제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리고자 최초의 심방(무조)이 되고 삼시왕(三十王)이 된다. 그들이 겪은 일련의 경험이 이들의 최종 신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¹⁷⁾ 이들의 시련은 세속에서 벌어진 일이며, 이들이 좌정하는 것은 신성한 세계의 일이다. 따라서 이 두 세계의 관계는 삼형제 신격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무속의 사제, 종교 세계의 영웅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초공본풀이>에 한국 무속 문화의 독자적 지점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초공본풀이> 서사를 중심으로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의 재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의 존재

제주도에서 채록된 <초공본풀이>는 현재 10여 편¹⁸⁾ 있으며, 그 가운데

16) 아끼씨가 남편을 찾아가 부부 확인 시험을 거치는 장면은 모든 자료에 나타나지만 삼형제가 아버지에게 확인 시험을 거치는 장면은 이중춘 본에만 나타난다.

17) 이 논문은 <초공본풀이>의 제의 맥락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제의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초공본풀이>와 신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의 신국』, 『비교문화연구』 5, 비교문화연구소, 1999, 87~108쪽, 문봉순, 『심방의 입무 의례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2005, 김현선(2003), 앞의 논문, 403~448쪽 참고.

데 본고는 서사의 내용이 풍부하고 짜임새가 잘 갖추어진 안사인 본과 김명윤 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두 편의 공통적 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임정국대감부부가 수록재를 드리고 딸을 얻는다.
2. 주자선생이 삼천선비와 내기를 하고 아기씨를 만나 그 머리를 세 번 쓰다듬는다.
3. 아기씨가 임신하고 부모에게 쫓겨난다.
4. 아기씨는 주자선생을 찾아가 시험에 통과하고 삼형제를 낳는다.
5. 삼형제는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삼천선비를 따라 과거시험을 보러간다.
6. 삼형제는 삼천선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합격한다.
7. 삼천선비가 정하님(하녀)을 띄어 아기씨를 지옥 궁에 가둔다.
8. 삼형제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가간다.
9. 삼형제가 심방이 되어 어머니를 살리고 삼시왕이 된다.
10. 유정승 딸은 장자의 딸을 위해 인간 세상에서 처음 굶을 한다.¹⁹⁾

18)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안사인 본(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26~150쪽)과 김명윤 본(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53~63쪽)을 주 텍스트로 한다. 그 외 박봉춘본(赤松智城 외,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242~258쪽), 고대중 본(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92~113쪽), 김병효 본(진성기, 앞의 책, 63~70쪽), 이중춘 본(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13~149쪽), 이용옥 본(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9), 양창보 본(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0), 고순안 본(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97~136쪽), 서순실 본(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5, 79~126쪽), 문정본(『풍속무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이중춘·김윤수 본(『한국음악』 31집(한국의 굿: 제주도 칠머리당굿), 국립국악원, 2000), 문순실 본(노재명 외, 『제주도의 무속음악』, 국립문화재연구소, 1994, 168~187쪽) 등이 있다.

19) 유정승 딸 이야기는 이본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다. 박봉춘 본, 김병효 본, 고대중

<초공본풀이>의 단락 1-4까지는 아기씨의 서사이고 5-9까지는 삼형제의 서사이며, 10은 유정승 딸의 서사이다. 10은 이본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일종의 후일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9까지의 서사를 중심으로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자.²⁰⁾

1) 아기씨 서사에서 세속과 신성

1-4까지 아기씨의 서사를 보자. 아기씨의 탄생과 성장·임신 과정은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 수 없으나, 비교적 현실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아기씨의 부모가 수륙재를 지내 아기씨를 낳고, 벼슬을 살러 가고, 아기씨를 궁에 가두는 이 공간은 특별히 신성한 곳으로 유표화 되지는 않는다. 반면 아기씨가 주자선생을 찾아 집을 나오면서 공간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다.

어령떠령 가다보난 칼손드리가 션고나

느진덕정하남아, 어떤 일로 칼손드가 있겠느냐?

상전남아, 부모가 우릴 죽이젠 할 때 칼손으로 죽이젠 허는 칼손드리가 뉘옵네다.

칼손드리 넘어가난 애손드리 션고나

느진덕이정하남아, 어떤 일로 애손드리가 뉘겠느냐?

본에는 구연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는 이 후일담이 양적으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비중을 유사하게 해서 서사의 균형을 잡이줄 뿐만 아니라 삼형제의 직능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중요하다고 본다.

- 20) 여기에 등장하는 세속적 공간 가운데에는 실제로 존재했던 곳도 있지만, 이 역시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같은 텍스트 내 신성한 공간과 비교할 때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세속적임을 먼저 밝혀둔다.

부모가 죽식을 내어놓 때 애손 먹슴 먹으나 애손드리 뉘옵네다.
애손드리 넘어가난 등진드리 잇었고나
이건 어떠흔 드릴러나?
부모 죽식 이별허연 등을 지고 나아오난 등진드리 뉘옵네다.
.....

“칼선다리”는 칼날 두 개가 뒤로 향하고 자루가 교차되는 모양이며, “애잔다리”는 칼날이 서로 안으로 마주 향한 형태이다.²¹⁾ 이런 다리들의 명명은 아기씨가 가는 길의 험난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현실에서 찾기 힘든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또 주자선생과 재회하는 도단땅이나 아이들을 낳는 불도땅은 초월적 공간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기씨의 서사가 세속적이면서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공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세속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세속적 욕망을 매개하며, 신성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신성한 욕망을 매개한다. 세속적 공간에서 아기씨의 임신은 주자선생의 욕망에 의한 것이다. 주자선생은 아기씨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만나고 오는 내기를 한다. 이러한 내기가 가능했던 것은 아기씨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아기씨의 아름다움은 그 이름에서부터 암시된다. 그녀는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 때 태어나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이하 아기씨)”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 이름은 붉게 물든 단풍 같은 그녀의 외모를 형용한다. 이렇게 아기씨의 아름다운 자질이나 그로 인한 내기, 교합의 사건들은 모두 현실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인간적 욕망 혹은 세속적 욕망에 기반한다.

아기씨가 불도땅에서 세 아들을 낳는 것은 신성한 사건이다. 삼형제의 탄생은, 아기씨의 탄생에 비해 초월적 모습으로 그려진다. 삼형제는 인간

21) <신갈점(神一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DB.

처럼 어머니의 자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큰 아들은 어머니의 오른쪽 겨드랑이, 둘째 아들은 왼쪽 겨드랑이, 셋째 아들은 가슴을 뜯고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난 삼형제에게는 본멩두, 신멩두, 삼멩두라는 이름이 부여된다. “멩두”는 제주도 심방이 곳에서 요긴하게 쓰는 무구 세 가지(산판·신칼·요령)를 말한다. 이들의 이름은 아기씨가 단풍든 모습을 따라 명명되는 것과 달리 신성한 도구들을 따라 명명된다. 삼형제의 자질은 ‘아름다움’이라는 아기씨의 육체적 자질과는 다를 것임이 암시된다.

2) 삼형제 서사에서 세속과 신성

아기씨의 서사가 세속적 공간에서 초월적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세속적 자질이나 사건이 초월적 자질이나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삼형제의 서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삼형제의 공부²²⁾와 시험은 세속적 배경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다시 이야기는 초월적 배경으로 전환된다. 삼형제는 불도땅에서 태어나고 신성한 이름을 부여받지만 신성한 영역에 완전히 속한 존재는 아니다. 그들은 다른 인간들에게 모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궁금해 하고, 다른 선비들처럼 서당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 과거에 응시해서 벼슬을 하고 싶어 한다. 이들을 구성하는 이런 욕망은 모두 세속적 성격을 가진다.

이들의 욕망이 신성한 것으로 전이되는 것은 어머니(노가단풍아기씨)가 지옥 궁에 갇히고 나서이다. 이는 상징적으로 어머니가 죽었음을 뜻한다. 이곳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공간이다.²³⁾ 결국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

22) 안산인 본에서 삼형제가 공부하는 서당의 이름이 ‘산천서당’으로 제시되는데, 제주시에 실재했던 공간이다.

23) 이 궁에 갇힌 것은 죽음을, 여기에서 나온 것은 재생을 의미한다. 이 궁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궁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연우,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과

리기 위해 과거를 포기한다. 아기씨의 죽음은 삼형제가 세속적 욕망을 포기하고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이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황금산 도단땅으로 간다. 이곳은 불이 붙은 들, 물이 거꾸로 흐르는 동산, 흑수 바다, 웨진 산 등을 지나가 갈 수 있는 곳이다.²⁴⁾ 아버지의 명대로 그들은 불도땅에 살고 있는 신이한 존재인 너사메너도령을 만난다. 삼형제는 너도령과 형제의 인연을 맺고 산에 올라 나뭇가지를 꺾어 약기를 만든다. 그렇게 만든 약기를 가지고 삼천천체석궁으로 가서 열나흘 동안 울린다. 어머니가 갇힌 공간, 어머니의 재생을 위해 이들이 움직이는 공간은 모두 초월적인 곳이며, 죽은 이를 재생시키는 사건 역시 신성한 성격을 가진다.

아기씨와 삼형제를 중심으로 볼 때 아기씨의 서사와 삼형제의 서사 모두에 세속적 공간과 초월적 공간이 관여한다. 이는 물리적 공간이 세속과 초월이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 이상의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각 서사에서 공간-인물-사건은 서로 맞물린다. 세속적 공간에서 등장인물이 가지는 세속적 자질이나 욕망은 세속적 사건의 연쇄인 세속적 서사를 만들어낸다. 가령 삼형제가 벼슬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가질 때 그것은 서당이나 과거장과 같은 세속적 공간에서 발생한다. 공부-과거-급제라는 일련의 사건이 그들의 세속적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이런 욕망은 글공부를 잘한다는 삼형제의 자질을 전제한다. 공간-

재생의 농경신화적 이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255~283쪽. 신연우는 아기씨가 살해되었다가 곳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는 설정이, 추수를 하며 곡식의 신이 살해되었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논의는 <주몽신화>의 유희, 당금애기와의 유사성 속에서 아기씨의 죽음과 재생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런 유사성을 전제하기보다는 아기씨가 무구를 관리하는 당신이 된다고 텍스트가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석을 진행한다.

24) 황금산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2010, 90쪽 참고.

인물-사건은 서로 맞물려 그에 부합하는 해석-이 경우 세속적 약호-을 만들어낸다. 본고에서 이러한 여러 층위의 맞물림을 하나의 ‘세계’로 표현한다. 이 경우 ‘세계’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등장인물의 자질이나 욕망 그리고 그에 따른 사건들을 포괄하는 용어가 된다.

아기씨의 서사와 삼형제의 서사는 대등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이야기는 처음 곳을 행한 초공 즉, 무조신에 대한 것이며, 이는 삼형제가 성취하는 신격이다. 아기씨의 서사는 삼형제의 서사를 시작하기 위한 전사(前史)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초공본풀이>에는 아기씨와 삼형제의 서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형제 서사 다음에 유씨 부인 이야기가 이어진다.

유씨 부인은 정승의 딸로 태어나지만 죽었다 살기를 거듭하며 눈이 어두워진다. 그녀는 예순일곱 살에 눈이 뜨이고 신안(神眼)을 얻는다. 유씨 부인은 일흔일곱 살에 자복장자의 부탁으로 곳을 하려 했으나 굶는 법을 알지 못한다. 유씨 부인은 당(堂)을 찾아가 무구를 빌린 후 당신이 시킨 대로 삼형제, 즉 삼시왕을 청하여 곳을 한다. 유씨 부인은 곳을 하고 원복장자네 외동딸을 살린다. 유씨 부인의 이야기는 후일담으로, 삼형제가 삼시왕으로 좌정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준다. 이 후일담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인간 세계에서 무당이 어떻게 곳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삼시왕이 그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시간상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시왕이 있었기에 인간 세계의 곳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인과관계에 있다.²⁵⁾ 유씨 부인 역시 심방으로 본다면, 이는 심방의 시원

25) 김현선도 이 후일담을 비중 있게 분석했다. 그는 여기에 유씨 부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굶법을 실행하고,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내게 되었으며, 굶할 때의 원조자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보면서 이 후일담이 삼형제의 서사와 체용관계(본체와 작용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김현선(2013), 앞의 논문, 421쪽.

에 대한 서사로서 삼형제 이야기와 동일성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기씨의 서사보다는 삼형제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세속과 초월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삼형제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관계는 다시 유씨 부인의 서사에서 반복되거나 강화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속과 신성의 두 세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 두 세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삼형제 서사에서 세속적 서사와 신성한 서사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은 삼형제가 무조신이 되는 데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 살펴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의 거리

1) 통합에 실패하는 세계: 탁월한 능력과 심화된 고통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삼형제가 세속적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로 나아가게 된 계기는 아기씨의 죽음이다. 삼형제는 세속적 세계에서 과거에 급제하기를 욕망한다. 이들은 이를 위해 글공부를 한다. 노력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은 세속적 삶의 원칙이다. 글공부에 대한 보상은 과거급제, 그리고 이어지는 벼슬제수가 될 것이다. 삼형제는 과거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도, 급제를 인정받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고, 끝내는 벼슬을 하지 못한다. 삼형제는 삼천선비와 계속 경쟁하고 계속 방해를 받는다. 이들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이 세계에서 통합 불가능성은 커진다. 삼천선비의 방해는 그 크기가 점점 커진다. 단순히 삼형제의 글솜씨를 시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들이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장난을 치고, 이어 상시관에게 항의를 하고, 드디어는 아기씨를 죽이도록 모략하는 데 이르기까지 삼천

선비의 방해는 점차 심각하게 전면화 된다. 삼형제가 탁월할수록 방해가 커진다. 이들의 세속적 능력이 이들의 세속적 고통을 증가시킨다. 능력이 고통이 된다.

삼형제의 세속적 욕망에 제동을 건 것은 삼천선비이고 삼천선비가 구실로 삼은 것은 이들이 중의 자식이라는 사실이다. 중의 아들이라는 출생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다. 태생부터 이들은 과거에 응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²⁶⁾ 삼형제는 세속적 세계에서 이를 수 없는 욕망을 가진 것이다. 절망에 빠진 삼형제는 아버지를 만나, 무엇이 좋아 중노릇을 해서 자신들이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나며 한탄하기도 한다. 세속적 세계에서 삼형제의 욕망은 중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좌절된다.

삼형제의 세속적 욕망은 끝내 실현되지 못한다. 이들은 문장도 최고이고 활쏘기도 최고이지만 세속적 세계에 통합되지 못한다. 삼형제가 글공부를 하고 과거를 시도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급제가 취소되는 일련의 사건은 이들에게 부여된 세속의 시련이다. 세속적 욕망을 중심으로 읽을 때 이러한 시련의 연속은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며 추락이다.²⁷⁾ 일반적 입사식당의 영웅들은 과도기의 시련을 극복하고 그에 합당한 자리를 부여받는다.²⁸⁾ “수행”으로 인해 사회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삼형제에게 시련은 또 다른 시련을 초래한다. 능력이 고통이 되고, 능력으로 세계에

26) 조선시대에 승려의 자식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27) 신연우는 이를 “삼형제가 삼천선비를 물리치고 과거에 급제하는” 상승의 서사라고 하고 이후 삼천선비의 모략으로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을 전락의 서사라고 하였다.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비속함과 성스러움』, 『고전문학연구』 42, 한국고전문학회, 2012, 179쪽. 신월균은 이들이 과거에 급제하면서 일견 소원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급제가 취소된 것으로 그들이 더 큰 고난에 부딪혔다고 본다. 신월균(1989), 앞의 논문, 366쪽.

28) Arnold van Gennep, *The Rite of Passage*, Monika B. Vizedom and Gabrielle L. Caffé, trans., Chicago University Press, 1961. pp.1~198.

통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공본풀이>는 능력을 통해 성취하는 세속의 영웅 서사와 다르다.²⁹⁾

2) 통합에 성공하는 세계: 낯선 능력과 자리의 획득

아기씨가 삼천선비로 인해 지옥 궁에 갇힌 후 삼형제는 이전과는 다른 욕망을 가진다. 어머니를 재생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성한 성격을 가진다. 삼형제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한다. 그들은 세속의 세계에서 글공부를 하고 활쏘기를 했다. 삼형제는 문무(文武)에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너사메너도령을 만나 약기를 만든다. 삼형제가 세속적 세계에 있을 때 그들은 글재주를 타고난 것처럼 보였다. 삼형제는 서당에 다니지 않고도 삼천선비를 능가하는 글재주를 지녔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문장의 탁월함은 신성한 세계에 오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글공부만 했던 삼형제에게 약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다루는 방법은 새로 배워야 하는 낯선 일의 영역이다. 그들은 어머니를 살리는 방법을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너사메너도령과 형제를 맺어 약기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운다. 삼형제는 신성한 세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며, 도움을 받기 위해 혈연을 맺는다.

이들이 약기를 만들고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의 이름에 실질적 의미가 부여된다. 세속적 세계에서 무구를 의미하는 삼형제의 이름 “멩두”는 세속의 세계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이름 대신 “젯부

29) 신연우는 과거시험이 현실의 부정을 초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과거시험'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77~103쪽. 그러나 삼형제가 자신들을 실패하게 한 아버지에게 원망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세속적 욕망을 초월했다거나 부정적 현실을 초월했다고 보기 힘들다.

기 삼형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재 위에 글씨 연습을 하는 삼형제라는 뜻으로, 삼천선비가 이들을 폄하해서 부르던 별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신성한 세계에서 이름에 걸맞은 지위를 획득한다. “맹두”라는 이름은 세속의 세계에서는 명목상의 이름이지만 신성한 세계에서는 곳을 가능하게 하는 신의 직능을 지시한다.³⁰⁾

이들은 그렇게 만든 악기를 가지고 삼천천제석궁 앞에서 밤낮 열나홀을 울려 어머니를 살린다. 이는 삼형제가 최초로 곳을 한 심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어머니를 살려 신성한 세계에서 삼시왕의 자리를 얻는다. 이들은 새로 익힌 능력으로 이 신성한 세계에 통합된다. 이들이 신성한 자리를 획득하는 데 주자선생이 보조적 역할을 한다. 주자선생은 이들에게 과업을 수행할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는 존재이다.

이렇게 아버지, 주자선생의 위상 역시 두 세계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세속적 세계에서 삼형제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있느냐고 묻는다. 여기에서 주자선생은 그 존재자체가 의문시되는 아버지였다. 신성한 세계에서 주자선생은 삼형제에게 직위를 부여한다. 세속적 삶에서 주자선생은 아들의 성공에 장애 요인이 되었지만 신성한 세계에서는 삼형제의 과업을 도와주는 존재이다. 삼형제는 주자선생으로 인해 세속에서 체제 내 통합을 이룰 수 없었지만 신성한 세계에서는 그로 인해 통합을 이루어낸다.

그 결과 삼형제는 삼시왕이 되어 삼천선비에게 복수를 한다. 이로써 삼형제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세속적 삶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낸다. 삼천선비에 대한 복수는 악에 대한 징치이기도 하면서 현실에 대한 무속의 위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삼형제는 현실적 삶의 위에 있는 무속적 질서의 절

30) 삼맹두는 “무조신의 신체이자 물질을 통한 현현이며, 심방의 의무 및 기능을 상징함으로써 제주 무속의 기본적이고 암묵적인 교리 체계”를 이룬다. 전주희(2011), 앞의 논문, 22쪽.

대성을 상징한다. 이 종교의 힘은 물리적·실제적으로 강력하다. <초공본풀이>에서는 그 강력한 힘의 주체들이 삼시왕이다. 삼시왕은 인간의 목숨을 좌우하는 막강한 힘으로 무업을 가능하게 하고 무업을 보호하기도 한다.³¹⁾

이상의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속적 세계	신성한 세계
삼형제의 욕망	과거 급제	어머니 회생
삼형제의 능력	문무의 탁월함	악기 제작 및 연행
주자선생의 역할	방해자	조력자
수행의 결과	통합의 실패	통합의 성공

4. 세속적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로의 이행: 부정과 엇갈림

이렇듯 <초공본풀이>에서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는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삼형제는 이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다. 이 두 세계는 절대 무관하지 않으며, 세속적 세계는 삼형제가 무조신이 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삼형제가 무조신이 되는 과정에서 두 세계의 경험은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분석한 두 세계의 정적 관계를 토대로 이 두 세계가 맺는 역동적 관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 이는 메타적으로 볼 때,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가 어떤 관련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지 그 무속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일견하기에, 삼형제는 세속적 세계에서는 실패하지만 신성한 세계에서

31) 제주도 무당들은 이 무구 속에 삼시왕의 영력(靈力)이 잠재하는 것으로 믿는다. 무조신은 최초의 무당이면서 무업(武業)을 보호하는 신이다.

는 성취한다. 세속적 세계에서 이들이 삼천선비로 인해 겪은 일련의 사건은 ‘시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들이 신성한 세계에서 어머니를 살려낸 것은 ‘과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시련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주인공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를 극복한다. 반면 과업이란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주인공이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³²⁾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리고자 스스로 심방이 되기로 결정한다. 이 경험은 그들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규정한다. 신성한 세계에서 삼형제가 어머니를 살린 것을 과업 성취로 보았을 때, 이는 타인과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과거 급제 같은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들은 어머니를 살려내기 위해 과거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 여타 영웅들이 비범한 능력(문무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영웅적 능력을 실현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속적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로의 진입은 시련 극복이 아니라 과업 수행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싸워 이겨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와 내려놓음으로 가능해진 것이다.³³⁾ 이런 포기와 내려놓음은 텍스트의 미시적 부분에서도 암시된다.

설운 아기덜 과거 띄완 올 때
 챗자에 무스게 조아니?

큰아들이 말흐뉘

“도임상이 줍테다.”

“큰아드랑 초감젿상 받아보라.”

초감제를 마련흐고

32) 시련과 과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253쪽 참고

33) 이경화 역시 삼형제가 무속에 입문하기 위해 과거에 포기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경화, 「<초공본풀이>와 <思松金>의 인물 관계와 그 의미」, 『한국무속학』 37, 2017, 209쪽 참조.

“셋아들은 무스게 조아?”
“별런딛게 쌍가메가 조읍데다. 육방하인 조읍데다.”
“초신맛이 받아보라.”
더군다나 조아진다. 초신맛이 마련하고,
“죽은 아들은 무스게 조아니?”
“남수와지 적쾌지에 늘라브든 조심친에 관복이 조읍데다.”
……시왕맛이 베풀어서³⁴⁾

삼형제가 심방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삼형제는 여러 상과 의례를 받는다. “상(床)(혹은 제(祭))”의 이름은 신을 맞아들이는 의례를 뜻한다. 의례의 중요한 특징인 “상”으로 의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환유에 해당한다. 삼형제의 새로운 자리는 세속의 것과 비교된다. 벼슬아치가 근무지에서 받는 도임상 대신 가장 먼저 신을 청하는 곳거리인 초감제를 받는다. 독교와 쌍가마를 타고 육방하인의 인사를 받는 대신 초신맛이를 받는다. 적쾌자에 관복을 입는 대신 시왕맛이를 받는다.³⁵⁾ 세속적 세계에서 처음 벼슬을 시작하는 일과 신성한 세계에서 처음 심방을 시작하는 일이 정확하게 대칭된다. 이는 두 세계의 차이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언급하기도 한다. 도임상과 초감제상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벼슬아치가 심방을 할 수는 없다. 삼형제는 도임상(가마, 하인, 관복)을 포기하는 대신 초감제상(초신맛이, 시왕맛이)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세속적 세계의 삶의 원리는 경쟁과 보상이지만 신성한 세계의 삶의 원리는

34) 안사인 분,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46~147쪽).

35) 김명윤 분에서는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차려주겠다고 하면서 세속의 것과 같은 기생, 하인, 음악 등을 그들에게 준다.

포기와 내려놓음이다. 세속적 세계에 있는 삼형제와 신성한 세계에 있는 삼형제 사이에도 심연이 있다. 세속적 세계에서 삼형제는 자리와 인정을 욕망하는 존재이고, 이루려는 존재, 경쟁하는 존재이지만 신성한 세계에서는 자리와 인정을 내려놓은 존재이고, 선택된 존재, 받아들여진 존재이다. 삼형제는 전자에서 후자로 존재론적 전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세속적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로 점차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다.

삼형제가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에서 가졌던 자질이나 능력의 차이가 텍스트 내부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은 유의미하다. 이들은 세속적 능력을 통해 신성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삼형제가 가진 문장과 활쏘기 능력은 어머니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나무를 깎아 악기를 만들어 울려서 어머니를 살린다. 삼형제의 능력뿐 아니라 아기씨의 아름다움도, 유씨 부인의 귀함도 신성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질이 아니다. 세속의 결함인 오히려 신성한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된다. 중의 아들이라는 점, 처녀로 임신했다는 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세속적 세계에서 출생, 도덕, 육체적 측면의 결함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은 결함으로 인해 신성한 세계에서 받아들여진다. 삼형제는 삼시왕이 되고, 아기씨는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고, 유씨 부인은 심방이 된다. 세속적 세계에서 장점이 신성한 세계의 장점이 될 수 없으며, 세속적 세계에서 단점이 신성한 세계의 단점이 되지도 않는다. 이는 단지 두 세계의 차이를 명시하는 것만은 아니다. 세속적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로의 진입이 이전의 자질이나 능력의 부정 혹은 끊어냄의 극단적 과정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텍스트 문면에서 세속적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로의 이행은 “전생팔자를 그르”친다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팔자와 관련되는 표현이 안사인 본에 세 번 나타난다. 첫 번째는 아기씨가 임신을 하고 부모에게 쫓겨나면서

“팔자 좋게 나를 낳던 어머님이 잘 사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삼형제가 심방이 될 때로, 주자선생은 어머니를 살리려면 전생팔자를 그려쳐서 살리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유정승 딸이 심방이 될 때인데, 유씨 부인은 일흔 일곱 나는 해에 굶을 잘해 명성이 나서 “전생팔자를 그려쳤습니다.”라고 한다.³⁶⁾ 이 표현에 따르면, 아기씨가 세속의 세계에서 신성의 세계로 진입할 때, 삼형제가 세속의 세계에서 신성의 세계로 진입할 때, 유씨 부인이 세속의 세계에서 신성의 세계로 진입할 때 이들은 팔자를 그르친 것이 된다.

팔자를 그르친다는 것은 팔자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팔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으로, 여기에 포함된 귀천, 빈부, 수명, 자식 등은 모두 세속적 세계의 삶을 규정한다. 아름다운 아기씨도, 능력 있는 삼형제도, 귀한 집 딸도 정해진 세속의 운명대로 살 수 없었다. 심방이 되는 것은 세속적 세계와 전적으로 다른 신성한 질서에 속하기 위해 한 세계(“전생”)를 거부하고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은 살아왔던 것과의 단절이며 ‘그르친다(망친다)’는 말이 함의하듯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단절이다.³⁷⁾

세속적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의 존재로 전환되는 것은 전생의 팔자를

36) 두 번째와 세 번째 맥락에서 팔자를 그르친다는 말은 특히 심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팔자를 그르치다”는 표현이 안사인 본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중춘 본과 문순실 본에서는 삼형제가 양반의 딸 전생팔자를 그르칠 방도를 아버지에게 묻기도 한다.

37) 이는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 사이의 해석적 단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세계는 삼형제가 무조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두 가지 세계를 염두에 두어야 이 본골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절은 정확하게는 삼형제가 무조신이 되기 위해 세속적 세계에서 가졌던 자질이나 능력, 욕망과 단절을 했다는 의미로, 인물 세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절을 말한다.

그르치는 것처럼 하나의 세계가 완전히 닫히는 경험이다. 그 캄캄함 뒤에 다른 세계의 문이 비로소 열린다. <초공본풀이>의 삼형제가 영웅이라고 한다면, 이 종교적 영웅은 이루고 성취한 영웅이 아니라 한 세계를 부정해 낸 영웅, 단절을 인내한 영웅이다. <초공본풀이>는 그런 영웅으로서 무조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며, 세속과 종교의 관계, 세속에서 인간의 삶과 무속에서 사제의 삶의 관계를 엮갈린 구조로 명시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5. 비극과 자존의 이중적 메시지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에서 삼형제의 능력이나 욕망은 대립적이다. 세속적 세계에서 삼형제는 문무에 탁월한 능력으로 벼슬을 하고자 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신성한 세계에서 삼형제는 악기를 만들어 치고 어머니를 재생하는 데 성공한다. 각각의 세계에서 아버지 주자선생의 역할 역시 방해자와 조력자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삼형제가 무조신이 되는 과정에서 세속을 초월했다거나 세속에서 신성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과제의의 입사식담은 영웅서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이다. 영웅은 집을 떠나 일련의 경험으로 단련된 후 돌아와 거기에 걸맞은 직위를 획득한다. 친숙한 사회에서 분리되고 새로운 곳에서 시련을 거쳐 사회 성원으로 비로소 자리매김 되는 격리-과도기(시련)-통합의 절차는 애초에 서사가 아니라 삶의 한 측면으로 제시된 것이다. 삶의 단계를 분절하고 추상화한 이 과정에는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믿음이 관여한다. 시련에는 결국 끝이 있으며 그것은 이전의 삶보다 나은 신분이나 지

위로 귀결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시련이 새로운 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시련과 통합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긴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제석본풀이>의 당금은 굴속에서 혼자 아들 삼형제를 낳는다. 그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혼자 힘으로 이겨 낸다. 당금이 삼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그녀의 시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자 수행에 대한 인정이다. 당금의 아들 삼형제가 스님의 아들로 승인받는 데에도 시련이 뒤따른다. 아버지는 아들의 능력을 시험한다. 소뿔다귀를 주워서 살아 있는 소를 만들어 타고 들어온다거나, 짚으로 북과 닭을 만들어 그 북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닭이 울음을 울어야 한다는 등의 시험이 그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으로 만드는 시험을 거쳐 <제석본풀이>에서 삼형제는 풍요의 신으로 좌정한다. 이들이 겪은 시련은 이들의 지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초공본풀이>에서 시련과 통합의 관계는 유기적이거나 긴밀하지 않다. 삼형제는 <제석본풀이>에서와 달리 아버지가 아니라 삼천선비로 인해 시련을 겪는다. 삼천선비는 결국 과거에 급제하고자 하는 삼형제의 욕망을 좌절시킨다. 삼형제에게 시련의 끝은 욕망 실현의 실패이며 체제 내 통합의 실패이다. 그러나 <초공본풀이>에서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닌 것은 신성한 세계로의 전환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본풀이에서와 달리 <초공본풀이>에서는 세속적 세계의 실패가 신성한 세계로의 진입을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때문에 삼형제의 서사를 이루고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도, 잃고 실패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도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모두 하나의 패러다임에서만 이 서사를 읽은 것이기 때문이다. 삼형제는 세속적 세계에서 실패했지만, 신성한 세계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세속적 세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신성한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실패와 성공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대응관계의 쌍*counterpart*이다. 이런 점에서 세속적 세계와 신성한 세계는 엇갈린다. 세속적 관점에서의 실패가 종교적 관점에서의 성공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속에서) 이루는 것이다. (세속에서) 그르쳐야만 (무속에서) 그르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초공본풀이』의 이러한 엇갈린 구조가 실제 무속의 사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관점과 상황에 따라, 이는 그들에게 두 가지로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 무속에서 받아들여졌기에 세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메시지를 생산할 수도 있고, (주자선생의 말처럼) 세속에서 이루는 것이 무속에서 이루는 것만 못하다거나 무속에서 이루는 것이 세속에서 이루는 것보다 궁극적이라는 자존심 강한 메시지를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초공본풀이>의 메시지는 실제로 해석될 때 비극과 자존 사이를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제주도(혹은 한국)에서 무속이나 무속의 사제자가 가지는 이중적 위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러한 이중적 위상을 구축해내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초공본풀이』에서 이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메시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정리되거나 귀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초공본풀이』에 구조화된 엇갈림은 비극과 자존의 이중적 위상을 견디는 것 자체가 신뿌리의 숙명임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노재명 외, 『제주도의 무속음악』, 국립문화재연구소, 1994, 1~232쪽.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383쪽.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290쪽.
- 赤松智城 외,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1~114쪽.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1~416쪽.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5, 1~367쪽.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0, 1~395쪽.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9, 1~463쪽.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1~922쪽.
-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859쪽.
- 『풍속무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한국음악』 31(한국의 굿: 제주도 칠머리당굿), 국립국악원, 2000.
-
- 김우주, 『<초공본풀이>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1~52쪽.
-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
회, 2003, 111~139쪽.
- 김현, 『현대소설의 담화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1995, 1~308쪽.
-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의 신굿』, 『비교문화연구』 5, 비교문화연구소, 1999, 87~
108쪽.
- 문봉순, 『심방의 입무 의례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1~118쪽.
- 문무병, 『<젓부기 삼형제가 나고 자란 불도땅>』, 『제주의 소리』, 2013. 09.03.
-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1~516쪽.
-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1~420쪽.
-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1~413쪽.
-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1~358쪽.
- 신연우,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과 재생의 농경신화적 이해』, 『한
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255~283쪽.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비속함과 성스러움』, 『고전문학연구』 42집, 한국고전문
학회, 2012, 174~175쪽.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한국무속학』 19집, 한국무속학회, 2002, 7~33쪽.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짜임새와 미적 성취」,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2010, 343~368쪽.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탐라문화』 36, 제주도 탐라문화 연구소, 2010, 85~110쪽.
-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 고찰」, 『국어국문학』 110집, 국어국문학회, 1989, 359~370쪽.
- 이경화, 「<초공본풀이>와 <思松金>의 인물 관계와 그 의미」, 『한국무속학』 37, 2017, 199~220쪽.
- 전주희, 「제주도 무구 ‘삼맹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민속학연구』 29, 2011, 5~28쪽.
-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 배달학회, 1986, 185~214쪽.
- 홍태한, 「동해안지역 당금애기 연구」, 『한국민속학』 9, 1998, 173~193쪽.

Gennep, Arnold V., *The Rite of Passage*, Monika B. Vizedom and Gabrielle L. Caffé, trans., Chicago University Press, 1961. pp.1~198.

Riffaterre, Michael *Semiotic of Poetry*, Bloomington and London; Indiana Univ. Press, 1978.

Kermode, John Frank, *The Sense of an Ending-Studies in the Theory of Fic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2000, pp.3~34.

Miller, D.A., "Narrative and its Discontents: Problems of Closure in the Traditional Novel", *Criticism-a Quarterly for Literature and the Arts*, 24,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82, pp.78~81.

ABSTRACT

The Narrative on the Religious Heroes
—Being “God of Shamans” in *Chogongbonpul-i*

Ryu, Jeong-wol

This discussion will examine the meaning of ‘God of Shamans’ in this mythical enjoyment group through the story of the three brotherhood being the shamanistic god in *Chogongbonpul-i*. In the secular world and the divine world, the threefold power or desire is contradictory. In the secular world, the three brothers try to do the job with excellent ability in their affairs, but they eventually fail. In the sacred world, the Three Brothers succeed in creating musical instruments and regenerating their mothers. In each world, the role of the father is also different between the interrupter and the helper.

This difference makes it difficult to see that the three brothers transcended secularity or naturally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being Gods. They deny or cut off their secular abilities or qualities and become Gods. This is expressed in the text of the sentence as “They make a failure of their palja[八字].” If they are heroes, these religious heroes are not a accomplished heroes but a heroes who have denied a world. The story is about the birth of unconditional as a hero, and it is a stor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lar and religi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life and shamanism in secular life as a disconnected structure. In conclusion, this myth conveys or builds a dual message of tragedy and self- sufficiency, depending on the aspects of the disconnected structure of the text.

Key Words *Chogongbonpul-i*, God of shamans, secular world, sacred world, religious hero, disconnected structure, tragedy, self-sufficiency

논문투고일 : 2019.07.16

심사완료일 : 2019.08.07

게재확정일 : 2019.08.16